

공양주는 누구인가

“가족처럼 스님과 함께 생활하실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60세 이하, 월 80만원. 경기도 가평 ○○사”,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신심돈독하고 오래 계실 분, 50세 이후, 서울 성북구 △△사”. 불교계 신문 구인광고 문구들이다.

‘밥하는 사람’으로 일컬어지는 공양주. 이들은 구인광고 등을 통해 사찰에서 일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찰은 왜 이들을 고용하는가. 자급 자족해야 할 승가에서 공양주를 둘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사찰과 고용된 공양주의 관계를 어떻게 봐야 할까. 공양주는 누구며, 이들의 현실 등을 짚어본다.

어엿한 종무원... 처우개선 시급



◇수련회 유형형 자들로 구성된 사찰 자원봉사팀. 사진은 지난해 7월 열린 해인사 사찰수련회에 서 점심공양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

▲공양주는 누구인가

강원도 A사찰 공양주 김 씨(49). 새벽 3시 일어나 사중 50인분의 공양을 준비한다. 공양주는 김 씨와 한 명뿐. 5시 아침 공양이 끝나면, 49세 재수음식준비에 들어간다. 여기 에다 11시에 있을 200인분의 신도수련회 점심, 그리고 주지 스님 방 청소와 빨래를 해야 한다. 눈코 뜰 새 없다.

김 씨와 같은 공양주의 역할은 전국의 사찰 공양주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사찰 규모와 지역 여건에 따라 편차는 있지만, 공양주들의 역할은 비슷하다. 대형 사찰은 업무가 불전관리·불사접수 등 어느 정도 분업화돼 공양주는 공양간(식당) 일만 전담하고 있지만, 도심 포교당이나 소형 사찰의 공양주 의미는 사뭇 달라진다. 식사준비는 기본, 사무일은 당연한 옵션이 된다. 이쯤 되면 공양주는 직업인의 성격을 띠게 되는 것은 물론, 웬만한 재가종무원의 업무까지 담당하게 된다.

공양주는 흔한 말로 ‘밥해주는 사람’들로 통한다. 과거에는 개인 불공을 목적으로 절에 들어와서 자발적으로 공양주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현재는 고용된 직업인으로서 공양주가 자리를 잡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공양주는 식당 종업원과 다른 직업 정체성을 갖고 있다. 노동력의 대가를 받는다는 점에서 직업인이지만, 일의 성격상 특별한 신심을 갖춘 신도인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다보니 공양주의 직업적 정체성은 애매해질 수밖에 없다. 사용자와 고용인의 관계는 아니지만 실질적인 고용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현실적인 정리가 필요하다. 신도이기 하지만 노동력의 대가를 주고받는 고용인이라는 점을 좀더 분명히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사찰은 왜 공양주를 두고 있는가 “스님들이 수행하려 왔지. 밥하러 왔겠습니까? 옛날에야 사중에서 스님이 어엿이 모여 사니까 알아서 소임을 맡았었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습니다. 대여섯 명의 행자들이 밥을 짓고 있는 있지만, 그나마 수시로 교육일정으로 빠져나가기 일쑤입니다. 이런데 어떻게 공양주 소임을 감당하겠습니까. 만약 공양주가 아예 없다면 많은 문제가 생겨날 겁니다.” 경남 밀양 H사찰의 사무장 박 씨(59)는 공양주의 필요성을 이렇게 털어놓는다. 사찰이 공양주를 고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 사찰 살림을 맡고 있는 사무장들은 현저히 줄고 있는 행자 수를 문제점으로 꼽았다. 조제종 분사급의 경우, 사찰의 주 노동력을 담당하는 행자들이 적게는 5명, 많게는 20여명 정도다. 그나마 이들은 행자교육원 입소 등 각종 교육일정에 따라 들쭉날쭉이 이동하다보니, 안정적인 노동력을 유지할 수 없

식당 종업원과 다른 직업 정체성 사찰규모별 표준화 된 급여체계 수립해야

구인난 심각... 조선족도 고용 절 음식 조리법 등 교육도 필요

다는 것이다. 공양주와 같은 소임 등을 승려 교육의 필수과정으로 적용해온 승가의 수행·교육 기능이 흔들리고 있는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또 한 가지. 사회가 다양화되면서 스님들의 일도 늘어났다. 템플스테이, 계절별 수련대회 등 사찰체험 프로그램의 급증이 이 같은 현상을 부채질하고 있다.

반면, 다른 목소리로 터져 나온다. 대전 지역 도심에서 포교당을 운영하는 모 스님은 “혼자서 포교활동에서 중무행정 일까지 도맡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하루가 빠듯합니다. 때문에 공양주를 고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두고 싶어도 사람이 없습니다. 큰 사찰이 아닌 경우에는 옛날처럼 탁발이라도 했지만, 신도 수행상당 등과 같은 포교활동이 늘면서 이마저도 할 수 없는

형편이죠.” 이 같은 공양주 구인난은 중국 조선족 동포들까지 고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3D기피 현상이 고스란히 불교계에 적용되고 있는 셈이다. 서울 모 사찰의 경우, 5년 전부터 조선족 동포 60대 여성 2명을 고용하고 있다. 이 사찰의 사무장 오 씨(56)는 “오죽했으면 불법 체류자까지 공양주로 고용하겠어요? 출·퇴근자보다 24시간 근무할 사람들을 선호하는 마당에 내국인이 이 같은 근무여건을 감당하겠어요. 사찰의 특수한 근무여건은 숙식문제를 해결하려는 조선족 동포들의 이해관계와 맞아 떨어져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제도 공식화·대우 현실화 필요 직업인으로서 공양주는 사실상 제도화됐다. 그렇다면 이제는 공양주의 처우개선에 눈을 돌려야 할 때다. 사실 이들 공양주의 급여는 사찰 규모에 따라 6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게다가 불규칙적인 근무 시간,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미가입 등은 공양주들의 근무여건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고 있다. 공양주의 높은 이직률 또한 지적된다. 대부분의 사찰에서 길어야 2년을 못 버티고 그만두고 있다. 또 육식 금지 등의 사찰음식 특수성에 대한 몰이해로 근무 적응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 같은 공양주의 현실을 감안, 아예 이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본사나 중앙종무기관은 사찰 규모별로 표준화된 급여 체계를 제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자급자족해야 할 승가가 이를 감당하지 못한 것도 승가가 풀어야 할 과제임을 알아야 한다.

전남 지역 사찰에 근무하는 사무장 모 씨(45)는 “공양주 역할이 중요한 만큼, 아예 공양주 제도를 중단 또는 사찰별로 종무원제도로 공식화할 필요가 있다”며 “공양주 자질 향상과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 사찰음식 조리법 등과 같은 교육 프로그램 실시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간화선의 힌두화론에 대한 반론’을 읽고



● 각목스님, 본지에 반론문 보내와 ●

지난 2월 25일 실상사에 열린 제7차 선우논강에서 각목 스님이 발제한 ‘간화선과 위빠사나, 무엇이 같고 다른가’에 대한 대응 스님의 기고문(본지 412호)에 대해 각목스님이 반론문을 보내왔다. 두 필자의 생산적 논쟁에 감사드리며 이러한 논쟁이 합리적 대안 도출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독자의 관심을 기대한다. <편집자>

“불교의 핵심은 연기와 무아 ‘진아’를 부처님 원뜻으로 불순 없어”

대승불교와 간화선과 힌두 수행법을 같은 선상에서 파악하고 있는 대성스님의 ‘간화선의 힌두화론에 대한 반론’을 읽고 착잡한 심정으로 대성스님 글의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한다.

첫째, 대성스님의 주장처럼 <열반경>은 과연 ‘진아 개념을 정면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간화선자의 필독서라 꼽히는 성철스님의 <선문정호>는 다음과 같이 <열반경>을 인용하고 있다. “십이인연(十二因緣)은 명위불성(名爲佛性)이요 불성자(佛性者)는 즉제일의공(卽第一義空)이요...”(<대열반경 25>) 이처럼 불성은 12연기의 다른 이름이고 공의 다른 이름이다. 그러므로 무아의 다른 이름이다. 그러면 ‘불성이야말로 생사를 초월한 진아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왜 <열반경>은 굳이 초기불교의 핵심인 12연기에서 그 연원을 두는가? 연기가 불교의 핵심임을 <열반경>도 인정하기 때문이다. 왜 공에다 그 연원을 두는가. 무아가 불교의 핵심임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무아와 연기에 바탕하지 않은 불성이나 여래장은 불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같은 여래장 계열의 <능가경>은 “(1) 제법에는 자아(我)가 없는 관계로 일체의 망상을 떠났다. (2) 그렇지만 지혜의 유익한 방편 [智慧善巧方便]으로써 어느 때는 여래장을 설하고 어느 때는 무아를 설한다. (3) 이러한 인연 때문에 여래장을 설하는 것은 의도가 설하는 자와 같지 않다(於法無我離一切妄想 以種種智慧善巧方便 或說如來藏 或說無我 以是因緣故說如來藏 不同外道所說之我. -- 大正16. 489p)”라고 해명하고 있다.

그런데도 “대승불교의 진아 개념” 운운하면서 대승불교를 힌두의 가르침과 동일시하려 한다면 이것은 부처님의 가르침 자체를 부정하는 말이 된다.

둘째, 불교의 핵심은 연기와 무아이다. 초기, 남방, 부파, 반야중관, 유식, 법화, 열반, 화엄을 포함한 여래장 계열 등 불교 역사에 등장한 모든 가르침에서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이 모든 가르침은 연기와 무아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8종의 조사후 추앙받는 용수스님의 <중론>을 무시한 반야중관은 아공법공(我空法空)이라는 명제로 인무아(人無我)뿐만 아니라 법무아(法無我)까지 역설한다. 그런데 어떻게 진아가 대승불교의 핵심이라 한단 말인가. 그리고 초기·남북불교 공히 무상·고·무아 혹은 무상·무아·열반을 삼특상 혹은 삼법인이라 하여 불교인이 아닌가를 판단하는 잣대로 삼고 있다. 이것은 불교의 상식이다. 그런데도 진아가 ‘부처님의 원뜻에 더 가깝다’고 말할 수 있단 말인가?

말에 떨어지지 말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언어는 중요하다. 초기·대·소승의 수많은 경에서 공히 무아와 연기를 고구정녕히 설하신 것은 반드시 그 이유가 있다. 부처님 제자가 되어 불교의 핵심인 연기와 무아에 대해서는 전혀 고뇌해보지도 않고 무아보다 진아가 더 부처님 원뜻에 부합하다 주장해서야 되겠는가.

백요양보하자. 그래서 <열반경>은 진아를 드러내고 있다는 주장을 인정하자. 그렇더라도 방대한 경전군들 가운데서 오직 여래장 계열에서 그것도 열반의 4덕인 상락아정(常樂我淨)의 하나로 표현하고 있는 자아라는 용어만을 유독 강조하여 대승불교는 진아를 더 강조하여 설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

은 대승불교 전체를 호도하는 억지에 가까운 주장이 아닐까. 더군다나 간화선이나 선종을 논하려면 <열반경>보다는 선종의 소의경전인 <금강경>에 바탕하여야 마땅하다. 자아라는 산나[我相]는 척과되어야 한다고 <금강경>은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가. 적어도 간화선을 논하려면 <열반경>의 상락아정보다는 ‘약보살(若菩薩) 통달무아법자(通達無我法者) 여래설명진시보살(如來說名眞是菩薩)’이라는 <금강경>의 무아의 가르침을 먼저 인용해야 하지 않을까.

셋째, 그러므로 “대승불교의 진아 개념을 무시한 채 우리의 근본 성품을 무아 일반도로 한정한다는 점에서 시아가 좁고...”, 등등의 대성스님의 글은 연기와 무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주장이어서 일고의 가치도 없다 하겠다. 소납(少納)은 인도유학 10년 동안 힌두의 소의경전인 초기 우빠니샤드들, 바가왓가, 요가수프라 등을 산스크리트 원어로 공부했고 바라문 교수님들과 많은 논쟁을 주고받았다. 띠루완나말라이의 라마나 아쉬람에도 세 번 가보았다. 그런 소납은 힌두적 수행법을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는 말하지 않는다. 힌두 수행법도 나름대로는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누구든 힌두적 수행법에 관심이 있고 그것

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도움이 되고 생각하면 불교 수행법을 버리고 그것을 따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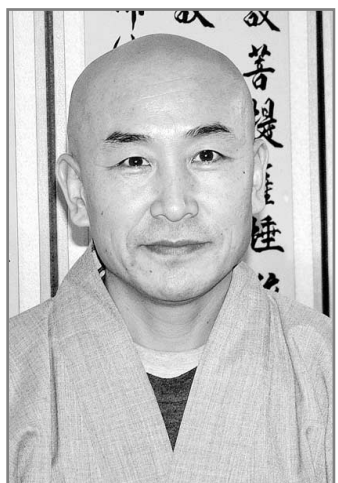
“나는 누구인가”, ‘이렇고’ 같이 뱌선 안돼 “힌두 수행법도 나름대로 충분한 의미 있어”

그러는데 굳이 그것을 불교의 간화선과 동일시하려 하는가. 우리는 무아와 연기를 고구정녕히 설하신 부처님의 제자이다. 그러므로 간화선하는 자는 “수행자들의 다양한 근거와 취향” 운운하기 이전에 무전제(무아의) 간화선의 입각처에 처절하게 고뇌해야 한다. 그런 고뇌를 하지 않고 섣불리 힌두적 ‘포아함(ko aham, 나는 누구인가)’을 ‘이렇고’ 화두와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

넷째, “대승불교의 전통에서 있는 간화선을 논하려면 대승경전과 조사, 선사들의 어록에 바탕해야 하며, 남방불교적 시각에서 간화선을 비판하려 드는 것은 출발이 잘못되었다”라는 대성스님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음을 밝힌다. 소납의 발제문 어디에도 남방불교의 시각에서 간화선을 잘못 비판한 곳은 없다. 소납의 발제문에 나타나는 간화선의 설명은 철저히 대혜스님이나 다른 선장들의 어록에 근거해 있다. 소납은 오히려 간화선의 무전제의 수행이야말로 소의 경전인 <금강경>과 초기 부처님의 무아사상에 맞지 않게 부합하는 수행법임을 천명하고 있다. 단지 이런 무아의 가르침에 바탕한 간화선을 진아여야 한다는 힌두식으로 이해하는 것을 강하게 비판하는 글을 ‘한국 간화선에 대한 고언’에서 제기했을 뿐이다. 발제문을 다시 한번 정독해주시기 바란다.

무전제(무아의) 간화선과 진아라는 전제를 두고 그것과 합일하려는 힌두적 수행법은 근본부터가 다르기 때문에 이들을 섞어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밝히면서 글을 접는다.

각목스님은 1979년 구례 화엄사로 출가하였다. 역지사지(강경 역해) <아비담마 길라잡이> 상·하 등이 있다. 실상사의 금강경결계 논주로 발제하였고, 7차 선우논강에서 ‘간화선과 위빠사나, 무엇이 같고 다른가’를 발제하였다.



탁미승 예언

영험도량

영험사례

- 15년전 죽은 삼촌 점신
- 26년전 죽은 어머니 점신
- 20년전 낙태혼 점신
- 18년전 죽은 언니 점신

많은 사연이 있습니다.

불보살님 가피력

- 참회하는 마음
- 용서하는 마음

해원사 초하루 18일 법회

031-336-3734 · 3735